

4/22/18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로마서 15:14-33)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5:14-33

- (롬 15: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 (롬 15: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 (롬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 (롬 15: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절관주** 빌 3:3
- (롬 15: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절관주** 행 21:19, 행 15:12
- (롬 15: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절관주** 행 19:11, 행 22:17
- (롬 15: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절관주** 고후 10:15
- (롬 15: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절관주** 사 52:15, 롬 1:13
- (롬 15: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절관주** 행 19:21
- (롬 15: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절관주** 롬 15:28, 행 15:3
- (롬 15: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절관주** 행 24:17

- (롬 15: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연보하였음이라
- (롬 15: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관주 롬 1:14
- (롬 15: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절관주** 롬 15:24
- (롬 15: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 (롬 15: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절관주** 갈 5:22, 골 1:8
- (롬 15:31)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절관주** 롬 15:25
- (롬 15: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절관주** 롬 15:23
- (롬 15: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감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 중 유일하게 자신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예의 바르게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존경을 표하고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함께 자신의 간증과 선교 사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 (롬 15: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롬 15: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 처음 대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여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도 구비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할 만큼 성숙하였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롬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세우신 것이기에 더욱 더 소중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친히 찾아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주된 일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인 소와 양들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 후 죽여 고기를 각 떠 불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사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여 칭의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칭의를 얻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롬 15: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롬 15: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롬 15:19 전)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앓은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흔들리어 감옥 문이 열리고 채워진 쇠사슬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 파선되었을 때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순종시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롬 15:19 후)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롬 15: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롬 15: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이 세워 놓은 선교 원칙이 있었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각 교단들과 교회들,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본 받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각 교단이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를 하다 보니 선교지가 겹쳐 교단끼리 그리고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원인 인력과 재물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피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조사 연구해 사역지로 정해야 합니다.

(롬 15: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롬 15: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러번 계획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대 도시 중심의 전략을 짜서 선교를 했던 바울로서는 이런 로마를 선교의 중요한 전략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을 번번이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현재의 스페인으로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하여 서바나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롬 15: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롬 15: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롬 15: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기쁘게 바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빛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롬 15: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롬 15: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바친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열매를 확증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를 들려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질을 가지고 가지만 로마에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복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서바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롬 15: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롬 15:31)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롬 15: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롬 15: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 교인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고 그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죄중에 택함받아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고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잃어 버린 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